

06 고 교 과 목 별

영어 절대평가에서 1등급과 2등급의 차이

대학별 감점표가 말하는 것

- ◆ 이 자료는 **무료**입니다.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.
- ◆ 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. **예측하지 않습니다.**

CONTENTS

01	숫자부터	2
02	정시는 다릅니다	3
03	무엇이 다른가	4
04	그래서 무엇을	5
05	자주 묻는 것	6

무엇이 들어 있나

- ◆ 수시 최저의 **94%에서 영어를 셀 수 있습니다** — 영어 1등급이 조건의 절반을 혼자 채웁니다
- ◆ **정시는 다릅니다** — 반영 비율에 넣는 곳과 총점에 가·감산하는 곳
- ◆ 같은 2등급인데 **대학에 따라 무게가 전혀 다른 예·조사**로 얻는 이득
- ◆ **다음 등급까지 2점과 8점은 다릅니다** — 얼마나 투자할지 정하는 차례

01 · 숫자부터

수시에서 영어는 거의 언제나 셀 수 있습니다

「영어는 절대평가라 부담 없죠?」

절반만 맞습니다. 등급을 받기는 상대적으로 쉽고, 그래서 더 중요해졌습니다. 모두가 쉽게 받는 등급이라 못 받으면 그만큼 크게 밀립니다. 그리고 수시와 정시에서 쓰이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.

먼저 수시입니다. 2027학년도 요강의 수능최저 조건 가운데 **규칙으로 읽어 낸 2,908줄**을 보면 이렇습니다.

무엇	얼마나
영어가 고를 수 있는 영역 에 들어 있는 줄	94%
영어로 따로 등급 조건 을 건 줄	105줄

거의 모든 최저 조건에서 영어를 셀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최저의 대부분은 「**몇 개 영역을 골라 등급 합**」 방식입니다 — 1,844줄이 2개 영역만 봅니다.

이 둘을 합치면 결론이 나옵니다. **영어 1등급은 최저 조건의 절반을 혼자 채웁니다.** 2개 영역 조건에서 영어가 1이면 나머지 하나만 챙기면 됩니다.

그래서 **영어가 강한 학생은 최저에서 매우 유리합니다.** 반대로 영어가 3~4등급이면 다른 두 과목에서 그만큼을 메워야 합니다. 「**절대평가라 부담 없다**」가 아니라 「**절대평가라 확보해 두어야 한다**」가 맞습니다.

출처: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6,482줄 가운데 최저 문장을 규칙으로 옮긴 2,908줄을 저희가 집계.

02 · 정시는 다릅니다

대학마다 셈이 따로입니다

수시 최저에서 영어는 등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입니다. 정시에서는 등급 사이의 거리가 대학마다 다릅니다.

방식	어떻게	영어가 갖는 무게
반영 비율에 포함	다른 영역과 함께 %로 셉니다	비율만큼 큼니다
총점에 가·감산	비율에서 빼고 점수를 더하거나 뺍니다	대학이 정한 표만큼

두 번째 방식에서 **대학 간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**. 2025학년도의 예를 들면, 어느 대학은 **2등급에 0.5점을 깎았고**, 어느 대학은 **1등급 100점·2등급 98점·3등급 95점**으로 매겼습니다.

같은 2등급인데 **한 곳에서는 거의 손해가 없고 다른 곳에서는 뚜렷하게 밀립니다**. 영어 등급 하나로 지원할 대학이 갈리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.

그래서 이렇게 쓰십시오

영어가 1등급이면 — 영어를 비중 있게 반영하는 대학이 유리합니다. 남들이 잃는 자리에서 나는 안 잃습니다.

영어가 2~3등급이면 — 감점이 작은 대학을 찾으셔야 합니다. 같은 성적으로 **환산 총점이 달라집니다**.

이건 공부가 아니라 조사로 얻는 이득입니다. 요강의 영어 환산표를 **목표 대학 몇 곳만 건뵈 보시면** 바로 보입니다.

출처: 2025~2026학년도 대학별 영어 등급 반영 방식에 관한 보도를 예로 든 것입니다. **대학·연도마다 다르고 해마다 바뀝니다**. 실제 값은 지원 연도 정시 요강의 환산표를 직접 확인하십시오.

03 · 무엇이 다른가

절대평가가 만든 것

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세 가지가 달라졌습니다.

Q. 하나 — 남과 견주지 않습니다

90점 이상이면 1등급입니다. 몇 명이 받은 상관없습니다. 상대평가처럼 「앞에 몇 명이 있느냐」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.

그래서 **목표가 분명합니다**. 90점을 넘기면 됩니다. 다른 과목처럼 「얼마나 잘해야 하는지 모르는」 상태가 아닙니다. 이것이 영어의 가장 큰 이점입니다 — 목표가 눈에 보입니다.

Q. 둘 — 등급 사이가 넓습니다

10점 단위로 등급이 갈립니다. 1점 차이로 등급이 바뀌는 일이 적습니다.

거꾸로 말하면 한 등급을 올리려면 10점을 올려야 합니다. 88점에서 90점은 가깝지만, 82점에서 90점은 멀니다. 지금 점수가 등급 경계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고 투자할지 말지를 정하시는 편이 낫습니다.

Q. 셋 — 그래서 「기본」이 되었습니다

받기 쉬운 등급이 되면서 많은 학생이 확보합니다. 그러면 못 받은 학생만 눈에 띕니다.

영어 1등급은 더해 주는 점수가 아니라 안 깎이는 자리에 가까워졌습니다. 「잘하면 이득」이 아니라 「못하면 손해」인 과목이 된 것입니다.

다만 해마다 난이도가 크게 흔들립니다. 1등급 비율이 한 자릿수까지 내려간 해도 있었습니다. 「절대평가니까 늘 쉽다」로 계획을 세우시면 위험합니다.

1등급 비율에 관한 언급은 보도된 수치를 근거로 한 것이며, 해마다 크게 달라집니다. 나머지 설명은 저희 판단입니다.

04 · 그래서 무엇을

정하는 차례와 점검표

영어는 얼마나 투자할지를 정하는 것이 공부 방법보다 먼저입니다.

차례	무엇을	왜
1	지금 원점수가 몇인지 봅니다	등급이 아니라 점수로
2	다음 등급까지 몇 점인지 셉니다	2점과 8점은 다릅니다
3	목표 자리의 최저에서 영어를 쓸 수 있는지 봅니다	대개 쓸 수 있습니다
4	정시를 본다면 환산표를 건춥니다	대학마다 무게가 다릅니다
5	그다음에 시간을 배분합니다	여기까지가 판단입니다

2번이 실전에서 가장 값집니다. 등급 경계에서 2~3점 모자란 학생에게 영어는 가장 효율이 높은 과목입니다. 조금만 채우면 등급이 올라가고, 그 등급이 최저를 통째로 바꿉니다.

반대로 다음 등급까지 8점 이상 남았다면 그 시간을 다른 영역에 쓰는 편이 최저 충족에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.

영어에 대해 확인하실 여덟 가지

- ☐ 지금 원점수 가 몇 점인지 아는가
- ☐ 다음 등급까지 몇 점 남았는지 세어 보았는가
- ☐ 틀리는 문제가 어느 유형 에 몰려 있는가
- ☐ 듣기 에서 읽고 있지 않은가 — 가장 채우기 쉬운 자리입니다
- ☐ 목표 자리의 최저에서 영어를 쓸 수 있는가
- ☐ 영어에 따로 등급 조건 을 건 곳은 아닌가
- ☐ 정시 환산표 를 목표 대학끼리 건줘 보았는가
- ☐ 영어에 쓰는 시간이 얻는 것에 비해 많지 않은가

네 번째를 꼭 보십시오. 듣기는 채우기 가장 쉬운 자리인데 놓치는 학생이 많습니다. 여기서 두세 문제를 확보하면 등급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.

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

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미 1등급이 안정된 학생에게 영어 수업을 더 권하지 않습니다. 절대평가라 1등급 위가 없습니다. 더 올려도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. 그 시간은 등급이 흔들리는 다른 과목에 쓰는 것이 맞습니다. 영어는 확보한 뒤에는 유지만 하시면 됩니다.

05 · 자주 묻는 것

영어를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

Q. 1등급과 2등급이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나나요?

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다릅니다. 세 자리로 나눠 보셔야 합니다.

수시 최저에서 — 큼니다. 대부분의 최저가 등급 합으로 세니 영어 1과 2는 합에서 1이 차이납니다. 앞서 보셨듯 합이 한 칸 달라지면 쓸 수 있는 자리가 20%p쯤 달라집니다.

정시에서 — 대학마다 다릅니다. 2등급에 0.5점만 깎는 곳도 있고 뚜렷하게 밀리는 곳도 있습니다. 목표 대학의 환산표를 봐야 답이 나옵니다.

영어를 따로 조건을 건 자리에서는 — 결정적입니다. 「영어 2등급 이내」 같은 조건이면 3등급은 그 자리에서 탈락입니다.

Q. 절대평가인데 왜 학원을 다녀야 하나요?

안 다녀도 되는 학생이 많습니다. 저희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.

영어를 목표가 눈에 보이는 과목입니다. 90점을 넘기면 됩니다. 지금 몇 점인지, 어디서 틀리는지가 명확하면 혼자 채울 수 있는 부분이 큼니다.

도움이 되는 경우는 대개 둘입니다. 기초 문법과 어휘가 비어 있어 혼자서는 어디부터 할지 모를 때, 그리고 혼자서는 안 하게 될 때입니다. 뒤통수도 진짜 이유입니다.

다만 1등급이 안정된 뒤에도 계속 다니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등급 위가 없습니다.

한 줄로 남기면

영어를 잘해서 버는 과목이 아니라 확보해 두는 과목입니다. 지금 원점수부터 확인하십시오. 거기서 판단이 나옵니다.

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집계와 대학별 영어 반영 방식에 관한 보도(2025~2026)를 정리한 것입니다. 정시 환산 방식은 대학·연도마다 다르므로 예시로만 실었습니다. 지원 전에는 목표 대학의 최신 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. 이 자료는 합격 여부나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습니다.